



새로운 소재로 차별화 ... 뻔한 구성도 꺾까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하 ‘사품인품’)이 초반 독특한 소재로 기존 KBS 주말극들과 다른 노선으로 걷는 데 성공했지만, 관객은 구성과 전개도 차별화할 수 있을지다.

‘사품인품’ 도입부는 주말 오후 8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보기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채워졌다. 첫 방송뿐만 아니라 무려 1회부터 8회까지 ‘청소년 동반자살’이 주요 에피소드로 다뤄지며 시청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인공 김청아(설인아 분)와 먼저 세상을 등진 구준겸(진호은)처럼 온라인을 통해 만나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청소년들 이야기는 사실 젊은 세대에서는 경청동지할 내용이 아니다. 최근에는 뉴스 사회면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라도 KBS 주말극에서 보는 충격은 달랐다. 보통 기존 작품들은 여주인공이 취업난, 생활고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캔디처럼 특유의 긍정적 성격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

KBS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화제 ‘막장’ 안정된 시청률과 ‘구태’ 비판 사이 선택 관심

야기로 시작했다. 주말극치고 다소 파격적인 전개를 보여준 ‘황금빛 내 인생’도, 전작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과 ‘하나뿐인 내 딸’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반부터 몰아친 어두운 소재와 전개에 시청 평도 “색달라서 재밌다”는 의견과 “흠 드라마로는 불편하다”로 확연히 갈렸다.

하지만 이 드라마 성패는 독특한 소재가 아닌 앞으로의 전개에 달렸다. 8회까지 방송된 현재 시점에서는 신선한 소재와 촬영 기법 등과 비교해 전개는 고무하다는 평이 적지 않다. 뻔한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했지만 매회 뒤돌아보는 때리는 반전 전개를 보여준 ‘황금빛 내 인생’과 반대 사례로 보인다.

일단 청아는 준겸의 어머니 흥유라(나영희)와 다시 맺기 어려운 악연이 됐다. 비록 최근 방송에서 유라가 청아를 용서

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그전 준겸의 사망 말고는 얽힐 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다.

그러나 청아는 준겸을 만나러 가던 기차 안에서 유라의 또 다른 아들 준휘(김재영)와 묘한 인연을 맺었다. 준겸의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두 사람은 결국 성인이 되면 운명적인 로맨스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록 유라가 청아를 인정한다 해도 유라의 동생 화영(박해미)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는 준겸의 빈소에서 청아의 머리채를 잡으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화영의 아들 도진우(오민석)는 청아의 언니 설아(조윤희)와 인연을 맺은 상황이라 ‘겹사돈’이라는 주말극 고유의 공식도 얼핏 비치는 분위기다.

‘키스 먼저 할까요?’ 등 미니시리즈들을 집필한 배유미 작가답지 않게 8회 동안 준겸의 사망이라는 에피소드로 계속 끌고 온 ‘옛가닥 전개’도 시청자 이탈을 우려하게 한다. 실제로 17.1% 시청률로 시작한 이 작품은 지난 6일 8회에서 25%대를 한 번 기록하기는 했지만, 또 그 전날에는 18%대에 그치며 오락가락하는 중이다.

초반 소재와 구성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결국 같은 길아지는 KBS 주말극 모습은 지상파 주말극이 처한 진퇴양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8일 “‘막장 드라마’ 전형을 따르면 30%대 안정적 시청률을 기록하다 보니 그 틀을 깨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지상파가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나가는 기존 포맷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하다는 반응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만 몰랐던 한글의 매력 MBC 다큐 ‘한글에 빠지다’



한글날 오늘 오전 10시55분

MBC TV는 한글날인 9일 오전 10시 55분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에 빠지다’를 방송한다고 8일 예고했다.

방송에서는 세계에 퍼진 한글 열풍과 우리가 몰랐던 한글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

는 신(新)한류 현상을 낳은 K팝,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을 번역한 달시 파켓 등을 통해 한글의 특성을 짚어본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는 공공 언어 실태를 점검하고 세대 간 언어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을 우리 사회가 대면하는 방식 등도 점검한다. /연합뉴스

최수종-하희라 부부, SBS ‘동상이몽2’ 재합류

SBS TV 스타 부부 예능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다시 합류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라부부’라 불리며 날마다 금슬을 자랑해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1년 7개월 만에 재합류하는 ‘수라부부’는 오는 21일 방송부터 만난다. 연출을 맡은 김동욱 PD는 “윤상현, 조현재, 인교진 등이 제각각 많은 ‘사랑꾼’이 있었지만, 최수종 씨의 애정 앞에서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동상이몽2’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120분 특별 편성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5 여름아 부탁해(재)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25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573통 한글날 경축식	10 좋은아침
10	00 제573통 한글날 경축식 50 팔도밥상 스페셜	25 동백꽃 필 무렵(재)	55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에 빠지다	10 SBS 뉴스 20 시크릿 부티크 모아보기
11	00 2019 퀴즈 온 코리아 1부		55 MBC 뉴스	
12	00 KBS 뉴스 10 2019 퀴즈 온 코리아 2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5 살리는 남자들(재)	05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다짜고짜 마을방송 50 KBS 재난방송센터	50 2019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키움 vs LG)	3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50 SBS 뉴스
2	00 KBS 뉴스 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양궁/농구/펜싱)			00 런닝맨 스페셜
3			20 빅스붐 50 뽀샤 메카드	30 배가본드(재)
4	00 특집 도전, 골든벨 한글날 골든벨(재)		05 MBC 뉴스 15 한글날 특집 지역록 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5	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재즈콘서트 '남만 목포'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숨터 40 특집 다큐 매혹의 실크로드	10 썸바이벌 1+1	1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스포츠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중국 명산 기행 -단하절경 장량산과 신선계>
09:00 출동! 슈퍼왕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5:55 출동! 슈퍼왕스(재)	<그곳에서 단 하루 3부 당산과 함께리편>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샤와 곰(재)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3:3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4:25 지식의 기쁨(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4:55 지식채널e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11일 己卯)

<p>36년생 목축하는바와 동 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48년생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는 형상이다. 60년생 어떠한 유혹을 한 다하더라도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72년생 당대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느니라. 84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 되니 완벽하게 대처 해야겠다. 96년생 결과에 집착 말고 현재의 사극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1, 37</p>	<p>30년생 기쁨이 조성 되면서 여러 가지가 처리 되는 형국이다. 42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54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66년생 변수로 인해서 합들어지겠다. 78년생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90년생 밤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빈틈없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7, 91</p>
<p>37년생 이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자. 49년생 기본 틀도 변형시켜야 하는 면모이다. 61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자. 73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잡아내야만 하느니라. 85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나에 따라서 효과와 가치가 달라져 있다. 97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임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8, 50</p>	<p>31년생 노력 못지않게 행운도 따라준다. 43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 차 있다. 55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67년생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다. 79년생 선택을 잘못 한다면 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91년생 자만한다면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행운의 숫자 : 69, 89</p>
<p>38년생 양 쪽 편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한다. 50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62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옳아하다. 74년생 막혀왔던 물꼬가 트이리라. 86년생 오랜 인연을 맺게 될 이가 보인다. 98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53, 60</p>	<p>32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44년생 과신은 금물이다. 56년생 해결될 것이니 조바심을 버리고 잠자코 있어야. 68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 하리라. 92년생 허니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2</p>
<p>39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51년생 긴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번거롭겠다. 63년생 가다가 잠깐 쉬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75년생 지나치다보면 역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87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99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 해 보자. 행운의 숫자 : 49, 51</p>	<p>33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45년생 덕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길성을 부르리라. 57년생 상하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69년생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81년생 지나친 경제심은 활동변경을 축소시킨다. 93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을 야기할 뿐이니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5, 97</p>
<p>40년생 으름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52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76년생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라. 88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00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셔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6, 20</p>	<p>34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46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58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70년생 당대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82년생 정리되어야 확실한 선택이 가능하다. 94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06, 35</p>
<p>41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53년생 참신한 발상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 65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77년생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89년생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착각한다면 순식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됨을 잊지 말라. 01년생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국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86, 72</p>	<p>35년생 소비적이어서는 안 된다. 47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59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안 되니 무모한 실행은 손해만 자초할 뿐이다. 71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83년생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95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61, 66</p>